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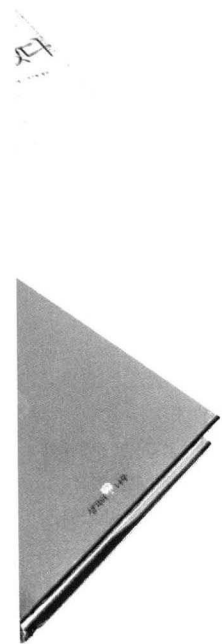
책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독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마음의 위로일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저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핑크가 지은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오고 있다》와 찰스 핸디의 《코끼리와 벼룩》은 정신적으로 위로를 겪고 있는 내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준 책이다.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자유에 목말라 있었다. 남들 눈에는 성공적인 직장생활이고, 일찍 승진하여 연봉도 제법 높았지만 나는 속으로 늘 '이 생활은 내가 꿈꾸던 생활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일이 다 끝나도 퇴근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싫어도 주어지면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회사와 관련 없으면 할 수 없고, 맘에 들지 않아도 같은 조직에 있으면 같이 일을 해야 하고... 한 마디로 거처적거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독립을 했다. 자유롭게 했지만 그 대가 또한 만만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복병이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자유를 꿈꾼다.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두 권의 책은 세상의 변화를, 직업의 변화를 알려 준다. 프리 에이전트는 시대가 대세라는 것도 알려 준다. 하지만 동시에 독립했을 때 각오해야 할 여러 교훈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다. 몇 가지 대목을 인용해 본다.

세상의 변화, 직업의 변화
그리고 나의 변화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생활의 큰 축복이다. 휴일을 회사 사정이나 동료들의 필요에 맞춰 조정했



던 나에게 달력의 아무 날이나 내 맘대로 약속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그 대신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고, 선택을 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성공의 의미를 재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생과 그 목적에 관한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중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명확해야 한다. 만일 별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치관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좋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남들이 독립을 하니깐, 좋아 보여서, 혹은 지금의 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평생의 시간을 미리 회사에다 팔아넘기고 그 대신 평생고용을 보장받는 그런 형태의 직장문화는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내 스케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력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사실 프리 에이전트는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통찰력, 재능, 전문적 기술, 아이디어, 창조성, 그리고 해결책을 파는 것이다.”(《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중에서)

프리 에이전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전문성과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남들보다 월등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프리 에이전트는 재능을 파는 것이다. 또 그 재능만 갖고도 안 된다.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이 찾아오고,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톰 피터스가 얘기한 '나만의 브랜드(I Brand)'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탁월해야 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

“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자본을 한 주식에 몽땅 투자하는 것과 같다. 노동의 다변화는 직업의 안정성이 사라져 버린 지금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다변화야말로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자신의 위험을 프로젝트, 의뢰인, 기술, 그리고 소비자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위에 분산시켜 놓아야 한다.”(《코끼리와 벼룩》중에서)

내가 가장 감동을 받은 대목 중의 하나였다. 이 책은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 회사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회사만을 짝사랑하고 있던 나는 어느 날 회사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회사를 나왔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험한 시장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엔지니어에서 컨설턴트로 변신하기 위해 우선 컨설팅 회사에서 밑바닥을 기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전문회사에서 전문경영인을 하면서 교육시장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고객층을 넓힐 수 있었다. 서서히 지식과 고객기반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독립을 하고 프리 에이전트가 되었다. 나름대로 삶의 포트폴리오도 갖췄었다. 나는 한 회사만을 상대하지 않고 여러 회사를 상대한다. 한 종류의 일만 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일을 한다. 컨설팅, 자문 및 코치, 강의, 글쓰기, 방송 출연 등이 그것이다. 한 회사에 바치던 충성과 시간을 여러 고객과 다양한 일을 위해 바친다. 📌

이 글을 쓴 한근태는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애크론 대학에서 고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자동차 이사, IBS 컨설팅그룹 컨설턴트,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등을 거쳤고, 현재 한스컨설팅 대표로 서울과학종합대학(aSSIST) 교수, 환경재단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나를 위한 룰을 만들어라》《40대에 다시 쓰는 내 인생의 이력서》《회사가 희망이다》가 있다.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
다니엘 핑크 지음 | 석기용 옮김 | 예코리브르 | 440쪽 | 값 15,000원
《코끼리와 벼룩》 찰스 헨디 지음 | 이종인 옮김 | 생각의나무 | 384쪽 | 값 13,000원